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版本에 대한 연구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Printed Editions of
Sooryuk-moocha-pyungdeung-jaeui-chwalyo(『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禹 秦 雄 (Woo, Jin-Woong)*

◁ 목 차 ▷

- | | |
|-----------------------|-----------|
| 1. 서 언 | 4.3 간행 지역 |
| 2. 水陸齋의 設行과 관련 경전의 간행 | 4.4 각수 기록 |
| 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개요 | 4.5 판화 |
| 4. 현전 판본 분석 | 5. 결 언 |
| 4.1 계통 | <참고문헌> |
| 4.2 간행 시기 | |

<초 록>

수륙재 의식서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1470년(成宗 1)에 왕실의 발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행된 이후 18세기 초까지 간행된 많은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판본을 조사하여 판본의 계통을 파악하고, 각 시대별, 지역별 간행의 양상과 刻手, 수록된 圖像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편차 구성은 37편과 37편을 변형한 35편의 두 종류가 있으며, 판본의 계통은 9계통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文殊寺版(1533) 계통이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또한 16-17세기에 간행된 판본이 전체의 약 85%,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간행된 판본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 본문에는 63개의 手印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手印의 전체적인 모양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要語: 水陸齋, 水陸齋儀, 水陸無遮平等齋儀,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結手, 結手文, 密教, 密教經典, 儀式集, 佛教儀式集

* 慶北大學校 社會科學研究院(jwoong78@naver.com)

접수일: 2011년 12월 9일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Sooryuk moocha pyungdeung jaeui chwalyo(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a Buddhist ritual manual, was first published in 1470 with the donation from the royal family. Since then many editions printed till the early 18th century remain until today. This study tried to figure out the systematic branch of its editions, and analyze the pattern of publishing by period and region, engravers, and engraved pictures by examining various editions of *Sooryuk moocha pyungdeung jaeui chwalyo*(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The text of *Sooryuk moocha pyungdeung jaeui chwalyo*(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was compiled in either 37 parts or 35 parts, and there are nine branches of editions. Among them, the largest group was confirmed to belong to Moonsoo-temple edition(1533). Furthermore the editions published between the 16th to the 17th century consisted of about 85% of all the editions. Also approximately 60% of the editions were published in Gyeongsang(慶尙) and Jeolla(全羅) provinces.

In the text of the book, there are 63 buddhist hand-shaped pictures, called Sooindo(手印圖). While their overall features are the same, the detailed expressions show minute differences.

Key words: Sooryukjae(水陸齋), Sooryuk ritual(水陸齋儀),
Sooryuk moocha pyungdeung jaeui(水陸無遮平等齋儀),
Gyulsoo(結手), Gyulsoomoon(結手文), Esoteric Buddhism(密教),
Esoteric Buddhist Sutra, Ritual book, Buddhist ritual book

1. 서 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水陸齋¹⁾의 의식 절차를 정리·편찬한 책이다.

이 책은 ‘結手文’이라고도 일컬어진다. 그 이유는 여기에 실린 내용이 수록재의 절차나 방법 외에 ‘結手’²⁾ 부분이 특별히 부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結手文」이 기타 수록재 관련 의식서와 다른 점은 手印의 방법(印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도상을 통하여 쉽게 이해시키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수록재는 고려시대에 처음 시행되어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전반적으로 탄압받았으나 집권 초부터 고려 왕족들의 천도를 위한 수록재가 시행되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주로 사찰 주도로 빈번히 이루어졌다. 수록재를 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내용과 방법·절차를 알려주는 수록재 관련 문헌의 보급이 필요하였으므로 중국에서 전래되었거나 우리나라에서 찬술한 여러 종류의 수록재 관련 의식서가 간행되었다.

그 중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成宗 1年(1470) 왕실의 발원으로 願刹인 見性寺에서 최초로 간행된 이후 18세기 초까지 계속해서 간행되어 수록재 관련 의식서 중 가장 많은 판본이 전해진다.

현재 사찰이나 도서관 등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의 종류는 약 40여종 이상이 확인된다. 특히 불갑사, 보림사, 기림사, 향산사 등의 사찰에 문화재로 이미 지정된 경전 중 많은 양의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록재의 성립과 전래에 대해 살펴보고, 수록재와 관련된 각종 의식서에 대해 개괄하였으며, 그 중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판본을 조사하여 판본의 계통을 파악하고, 각 시대별, 지역별 간행 양상과 각수, 도상에 대해 서지학적으로 분석하였다.

1) 水陸齋는 육지와 바다에서 해매는 靈魂과 餓鬼를 위로하기 위하여 佛法을 說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식으로 조선시대에 가장 통용된 불교의식이다.

2) 사전적 정의는 ‘佛菩薩 등이 깨달음을 표시하기 위해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행위’로 結印, 手印이라고도 한다.

2. 水陸齋의 設行과 관련 경전의 간행

2.1 水陸齋의 성립과 한국 전래

水陸齋는 ‘水陸無遮平等齋’의 약칭으로, 水陸會, 水陸齋儀, 無遮大會, 水陸道場이라고도 일컬어지며, 水陸에서 사는 모든 영혼들에게 法食을 평등하게 공양하여 구제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

水陸齋의 기원은 天鑑 2年(503) 正月에 중국 梁나라의 武帝가 法雲殿에 거처할 때 꿈에 神僧이 나타나 수륙재를 베풀라는 말을 듣고, 誌公和尚에게 水陸齋에 대해 물으니 여러 경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자 法雲殿에 藏經을 두고 열람하다가 마침내 『水陸儀文』을 만들었고, 이에 의하여 天監 4年(505) 2월 15일에(江蘇省) 金山寺에서 최초로 설행하였다³⁾고 한다.

이후 唐 咸亨年間(670~673)에는 西京의 法海寺의 英禪師가 大覺寺에 가서 『儀文』을 빌려와 法海寺에서 水陸齋를 베풀었고, 그 뒤 宋朝 때에 東坡 蘇軾이 『水陸齋法』을 重述하였고, 熙寧年間(1068~1077)에 東川 楊鐸이 『水陸齋儀文』 3卷을 製定하였다.⁴⁾

水陸齋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것은 太祖 23年(940)에 新興寺를 重修하고, 공신답을 설치하여 三韓功臣을 동서 벽상에 그려 붙이고 晝夜 동안 無遮大會⁵⁾를 열었는데 이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열렸다는 기록⁶⁾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3) 『天地冥陽水陸雜文』 文 水陸緣起.

“梁天鑑二年正月十五日夜夢一神告曰六道四生受大苦惱何不作水陸大齋而救援之帝問沙門咸無知者唯志公勸帝曰廣尋經典必粗有緣乃取藏經置法雲殿躬自披覽瓶造儀文三年乃成...(中略)...天鑑四年二月十五日於金山寺依儀文修設.”

4) 金蓮敬, “한국 水陸齋儀에 관한 연구,” 『식립』 第11輯(1977), 287.

5) 우리나라 최초의 水陸齋는 970년 葛陽寺에서 설행되었다는 설도 있다. ‘水陸齋’와 ‘無遮大會’는 의식의 성격을 다르게 볼 수도 있으나 ‘無遮大會’는 ‘水陸齋’보다 규모가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佛德을 나눈다는 의미가 강하게 지닐 때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水陸齋’와 ‘無遮大會’는 같은 의식으로 봐야 할 것이다.

6) 『高麗史』 第2卷 世家 卷2.

“是歲 重修新興寺置功臣堂畫三韓功臣於東西壁設無遮大會一晝夜歲以爲常.”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설행되었을 것이다.

이어 崔承老(927~989)의 上疏文⁷⁾을 통해 光宗(949~975 在位)에 의해 당시 水陸齋가 빈번하게 설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승려 惠居를 國師로 삼고, 坦文을 王師로 삼았는데, 혜거국사는 葛陽寺의 山水가 빼어나니 국가의 영원한 祝願道場으로 삼으라 하여 이에 임금이 葛陽寺를 고려왕조의 願刹로 삼고 水陸齋를 설행하였다.⁸⁾

또 毅宗 19年(1165) 임금이 無遮大會를 열었다는 기록,⁹⁾ 忠穆王 4年(1348) 11월에 공주(德寧公主)가 王의 병 치료를 위해 前 贊成事 李君佺을 天磨山에 보내 水陸會를 베풀고, 기도하였다는 기록¹⁰⁾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수록재는 고려 초기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조선시대에는 가장 널리 시행한 불교의식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에 수록재와 함께 가장 많이 개설되었던 祈雨齋는 旱魃이 극심한 경우에 행한 의식이고, 大雨, 洪水가 있을 때는 祈請齋로 봉행하였다. 이외에 消災道場, 文豆婁道場, 孔雀齋, 四天王道場, 藥師精勤, 帝釋齋, 眞言法席, 鎮兵法席, 星變祈禳法席, 觀音精勤 등 많은 의식이 개설되었다.¹¹⁾

조선초기 수록재 설행의 주된 목적은 고려왕조의 遷度を 위한 것이었다. 太祖는 즉위한 직후 觀音堀, 見巖寺, 三和寺에서 水陸齋를 베풀고 매년 봄과 가을에 항상 거행하게 하였는데,¹²⁾ 이는 고려 王族들을 죽인 강화, 삼척, 거제의 세 사찰에서 그들을 천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성문 밖 세 곳에 수록재를 베풀어 役夫로서 죽은 자의 혼령을 위로하고는, 命하여 그 집도 3년 동안 복호하도록

7) 『高麗史』 第93卷 列傳 第6 崔承老.

“此弊始於光宗崇信謾邪多殺無辜惑於浮屠果報之說欲除罪業浚民膏血多作佛事或設毗盧遮那懺悔法或齋僧於毬庭或設無遮水陸會於歸法寺.”

8) 한지희, “竹菴 編纂『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의 書誌의 研究,”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9), 14.

9) 『高麗史』 第18卷 世家 第18.

“出御玄化寺. 辛酉 還宮設無遮大會.”

10) 『高麗史』 第37卷 世家 第37.

“朔公主以王疾遣前贊成事李君佺設水陸會於天磨山禱之.”

11) 東國大 佛教文化研究院, 『韓國佛教思想概觀』, 292-294.

12) 『朝鮮王朝實錄』 太祖 4年 2月 戊子條.

하였다는 기록,¹³⁾ 津寬寺에서 수륙재를 베풀었다는 기록,¹⁴⁾ 乾聖寺에서 帝釋禮懺을 베풀고, 津寬寺에서 수륙재를 베풀었다는 기록¹⁵⁾ 등에서 조선 초기에 국행 수륙재가 빈번히 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成宗朝에는 비용이나 漕運 등의 이유로 禮曹에서 수륙재를 혁파하자는 기록¹⁶⁾과 같이 수륙재 설행에 대한 반대 의견이 처음으로 보이며, 燕山君朝에는 司憲府掌令 康伯珍, 司諫院正言 李懿孫 등 유신들의 水陸齋 폐지 上訴가 있었으나¹⁷⁾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고, 中宗 10年(1515)까지 시행되다가 이후 국행 수륙재는 결국 폐지되었다.

이렇듯 조선은 유교 국가였으나 신앙은 불교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불교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유지되었고, 이를 위해 불교의례인 수륙재를 시행하였다. 世宗 이후부터는 국가적인 의식이 아니라 先王과 先后의 명복을 빌기 위한 왕실의 사적 수륙재가 더 많았다.¹⁸⁾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는 국행 수륙재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각 지방마다 사찰 주도로 父母 遷度, 佛經 刊行, 寺刹 重修를 목적으로 한 수륙재가 성행하였다.

2.2 水陸齋 관련 경전의 간행

우리나라에서 수륙재 의식서를 간행하였다는 최초의 기록은 『楊村集』에 실려 있다. 權近은 ‘水陸儀文跋’에서 太祖 3年(1394)에 고려 왕씨의 薦祭를 위해 『妙法蓮華經』 3部, 『水陸儀文』 37本을 간행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나¹⁹⁾ 이것이 수륙재

13) 『朝鮮王朝實錄』 太祖 5年 2月 乙卯條.

14) 『朝鮮王朝實錄』 太祖 7年 1月 甲寅條.

15) 『朝鮮王朝實錄』 太宗 1年 1月 丁卯條.

16) 『朝鮮王朝實錄』 成宗 25年 2月 丁丑條.

17)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元年 12月 辛巳條.

18) 梁智淪, “朝鮮後期 水陸齋 研究,”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學校 大學院, 2003), 11.

19) 『楊村集』 水陸儀文跋.

“(中略)法華經三部特於內殿親臨轉讀又印水陸儀文三七本命設無遮平等大會于三所各置蓮經一本儀文七本永藏.”

관련 여러 의식서 중 어떤 것을 지칭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후 조선시대에 간행된 수록재 관련 경전은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天地冥陽水陸儀文」, 「天地冥陽水陸雜文」,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仔變文節次條例」, 「水陸儀文撮要」 등이 있다.

2.2.1 「天地冥陽水陸儀文」

北宋時代 楊諤이 편찬한 「天地冥陽水陸儀文」과 金나라의 仔變가 찬집한 「佛說焰口經天地冥陽水陸儀文」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것은 모두 仔變本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²⁰⁾

2.2.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水陸齋의 제반 의식 절차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印法을 설명하고 手印圖를 그려 넣어 편찬한 책으로 ‘結手文’이라고 한다.

2.2.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고려후기 竹菴이 편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中禮文’이라 한다. 水陸齋의 기원과 의식절차를 집성하였으며, ‘設會因由篇’에서 ‘普伸廻向篇’까지 총 54개의 의식 문으로 구성되었다. 수록재 관련서 중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 함께 많은 판본이 전해진다.

2.2.4 「天地冥陽水陸齋儀」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와 내용상 같지만 편집체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20) 한지희, 27.

있다. 松川寺版(1578), 佛峯庵版(1586), 湧珍寺版(1642), 開興寺版(1662), 華藏寺版(1675) 등이 전해진다.

2.2.5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중국 北水陸의 기반인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와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南水陸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 南宋의 승려 志磐이 편찬하였으며, 줄여서 「志磐文」이라고 한다. 내용은 죽은 자의 영혼 천도의 뜻이 많이 내포되었다. 岬寺版(1559), 廣興寺版(1563), 普院寺版(1566), 空林寺版(1573), 龍腹寺版(1632), 通度寺版(1649)이 있다.

2.2.6 「天地冥陽水陸雜文」

水陸齋 관련 여러 雜文을 모아 수록한 것으로, 卷上下로 나누어 卷上은 「文」·「表章」·「榜」, 卷下는 「疏」·「牒」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燕山君 2年(1496)에 왕실발원으로 印經木活字로 印出되었고, 이후 이를 번각하여 松廣寺版(1531), 無爲寺版(1572), 講堂寺版(1581), 龍腹寺版(1635), 道岬寺版(1655)이 전해진다.

2.2.7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

3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道林寺版(1709), 重興寺版(1721), 道林寺版(1739)이 전해진다. 기타 수록재 관련 경전인 「仔變文節次條例」, 「天地冥陽水陸儀文」, 「水陸儀文撮要」는 모두 기존 내용에 약간의 添削의 변형을 가하여 편찬한 것이다.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版本에 대한 연구

<표 1> 水陸齋 관련 경전(「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제외)

經典名	刊行地・處(刊行年)
天地冥陽水陸雜文(6)	王室發願版(印經木活字)(1496), 松廣寺版(1531), 無爲寺版(1572), 14年(1581), 講堂寺版(1581), 龍腹寺版(1635), 道岬寺版(1655)
天地冥陽水陸齋儀(5)	松川寺版(1578), 佛峯庵版(1586), 湧珍寺版(1642), 開興寺版(1662), 華藏寺版(167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39)	1470年版(金守溫 跋文), 大光寺版(1513), 雲門寺版(1515), 無量寺版(1529), 公山本寺版(1532), 靈覺寺版(1536), 廣興寺版(1538), 小馬寺版(1540), 石頭寺版(1546), 雙峯寺版(1563), 普願寺版(1565), 普門寺版(1568), 無爲寺版(1571), 雙溪寺版(1571), 松廣寺版(1574), 德周寺版(1579), 瑞峯寺版(1580), 海印寺版(1581), 龍泉寺版(1593), 能仁菴版(1604), 岬寺版(1607), 青龍寺版(1612), 水巖寺版(1631), 大興寺版(1634), 龍藏寺版(1635), 松廣寺版(1635), 甘露寺版(1636), 通度寺版(1637), 萬淵寺版(1640), 海印寺版(1641), 松廣寺版(1642), 通度寺版(1648), 開興寺版(1651), 法注寺版(1656), 開心寺版(1658), 栖鳳寺版(1659), 百泉寺版(1659), 興國寺版(1660), 神興寺版(1661), 海印寺版(1694)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3)	道林寺版(1709), 重興寺版(1721), 道林寺版(1739)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7)	1470年版(金守溫 跋文), 岬寺版(1559), 廣興寺版(1563), 普院寺版(1565), 空林寺版(1573), 龍腹寺版(1632), 淸溪寺版(1632), 松廣寺版(1635), 通度寺版(1649)
仔變文節次條例(1)	海印寺版(1724)
天地冥陽水陸儀文(1)	松廣寺版(1533), 1688年版
水陸儀文撮要(1)	未詳(1670)

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개요

3.1 편찬과 내용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수록재의 의식 절차를 정리하여 편찬한 책이다. 梁武帝에 의해 처음 시작된 水陸齋는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940년에 ‘無遮大

會’라는 이름으로 新興寺에서 열렸던 것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이후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까지 많은 수륙재가 개최되었는데 기록상에는 ‘無遮大會’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모두 ‘水陸齋’, ‘水陸道場’으로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륙재 관련 의식서가 최초로 전래된 기록은 宣宗 10年(1090)에 崔士謙이 宋나라에 가서 『水陸儀文』을 구해 와 임금에게 水陸堂을 짓자고 하였으나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普濟寺의 水陸堂에 화재가 난 기록²¹⁾에서 확인된다. 또한 수륙재 의식서를 처음으로 간행하였다는 기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楊村集』에 수록되었다.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본문 내용은 <표 2>와 같이 ‘設會因由篇’부터 시작하여 37篇²²⁾의 의식문이 있으며, 의식문 내에는 63種의 진언이 수록되어 진언의 상단에는 手印의 도상, 하단에는 印法을 설명하고 있다.

印法은 손가락을 大母指, 頭指, 中指, 無名指, 小指로 나누어 각 손가락의 위치, 모양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상화하였다.

<표 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편차 구성

設會因由1	召請中位14	宣密加持27
嚴淨八方2	天仙禮聖15	呪食現功28
發菩提心3	獻座安位16	孤魂受饗29
呪香通序4	召請下位17	懺除業障30
呪香供養5	引詣香浴18	發四弘誓31
召請使者6	加持澡浴19	捨邪歸正32
安位供養7	加持化衣20	釋相護持33
奉送使者8	出浴參聖21	修行六度34
開闢五方9	加持禮聖22	觀行偈讚35
安位供養10	受位安座23	廻向偈讚36
召請上位11	加持變供24	奉送六道37
獻座安位12	宣楊聖號25	
普禮三寶13	說示因緣26	

21) 『高麗史』第10卷 世家 第10.

“普濟寺水陸堂火 先是嬖人攝戶部郎中知太史局事崔士謙入宋求得水陸儀文請王作此堂功未畢而火.”

22) 판본에 따라 35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3.2 「中禮文」, 「志磐文」과의 내용 구성 비교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간행된 것이 아니라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中禮文)와 같은 기타 의식서와 함께 간행되었다.²³⁾ 이러한 사실은 <표 3>과 같이 같은 해 같은 사찰 간행의 현전 판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의 第1篇인 「設會因由篇」의 말미에 雙行으로 된 기록에 의하면 “印契 등의 法은 小本에 있으므로 이를 거듭 신지 않는다”²⁴⁾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小本’이란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는 대부분 함께 간행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 1470年 金守溫의 跋文이 있는 乙亥小字로 인출된 불경 중에는 ‘中禮文 二百件 志磐文 一百件 結手文 一百件 仔夔文 五十件’이 함께 인출된 기록도 확인된다.

<표 3> 「中禮文」, 「結手文」의 동일 간행 사례

書名	版本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大光寺版(1513), 無量寺版(1529), 公山本寺版(1532), 靈覺寺版(1536), 廣興寺版(1538), 普願寺版(1565), 普門寺版(1568), 無爲寺版(1571), 松廣寺版(1574), 瑞峯寺版(1581), 能仁菴版(1604), 岬寺版(1607), 水巖寺版(1631), 大興寺版(1634), 龍藏寺版(1635), 松廣寺版(1635), 海印寺版(1641), 通度寺版(1648), 開興寺版(1651), 栖鳳寺版(1659), 興國寺版(1660), 神興寺版(1661), 海印寺版(169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大光寺版(1514), 無量寺版(1529), 公山本寺版(1532), 靈覺寺版(1536), 廣興寺版(1538), 普院寺版(1566), 普門寺版(1568), 無爲寺版(1571), 松廣寺版(1574), 瑞峯寺版(1581), 能仁庵版(1604), 岬寺版(1622), 水岩寺版(1631), 大興寺版(1634), 龍藏寺版(1635), 松廣寺版(1635), 海印寺版(1641), 通度寺版(1648), 開興寺版(1651), 栖鳳寺版(1659), 興國寺版(1660), 神興寺版(1661), 海印寺版(1694)

23) 일부는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志磐文)와 함께 간행된 판본도 확인된다.

24) “所有印契等法具載小本此不重錄.”

「結手文」, 「中禮文」, 「志磐文」의 편차 구성은 동일한 부분도 있으나 여러 곳에서 편차의 추가, 이동이 보인다. 각 의식서의 篇數는 「結手文」의 경우 37篇, 「中禮文」은 54篇, 「志磐文」은 40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結手文」을 「中禮文」과 비교하면 「結手文」의 發菩提心(3篇), 加持變供(24篇), 宣楊聖號(25篇), 奉送六道(37篇)가 생략되었다. 「結手文」第3篇의 생략으로 「結手文」의 第4-11篇(呪香通序-召請上位)이 「中禮文」에는 第3-10篇으로 되어 있으며 第11-13篇은 奉迎赴浴, 讚歎灌浴, 引聖歸位이 추가되었다.

또한 「中禮文」의 奉迎赴浴(17篇), 援衣服飾(26篇), 祈聖加持(30篇), 普伸拜獻(31篇), 供聖廻向(32篇), 祈聖加持(33篇), 普伸拜獻(34篇), 供聖廻向(35篇), 加持減罪(37篇), 願聖垂恩(41篇), 請聖受戒(42篇), 得戒逍遙(47篇), 修成十度(48篇), 依十獲果(49篇), 化財受用(52篇), 敬伸奉送(53篇), 普伸廻向(54篇)이 추가되어 편차가 이동되었다.(〈표 4〉의 진한 부분)

<표 4> 「中禮文」, 「志磐文」과의 내용구성 비교

結手文	1.設會因由 2.嚴淨八方 3.發菩提心* 4.呪香通序 5.呪香供養 6.召請使者 7.安位供養 8.奉送使者 9.開闢五方 10.安位供養 11.召請上位 12.獻座安位 13.普禮三寶 14.召請中位 15.天仙禮聖 16.獻座安位 17.召請下位 18.引詣香浴 19.加持澡浴 20.加持化衣 21.出浴參聖 22.加持禮聖 23.受位安座 24.加持變供* 25.宣楊聖號 26.說示因緣 27.宣密加持 28.呪食現功 29.孤魂受饗 30.懺除業障 31.發四弘誓 32.捨邪歸正 33.釋相護持 34.修行六度 35.觀行偈讚 36.廻向偈讚 37.奉送六道*25)
中禮文	1.設會因由 2.嚴淨八方 3.呪香通序 4.呪香供養 5.召請使者 6.安位供養 7.奉送使者 8.開闢五方 9.安位供養 10.召請上位 11.奉迎赴浴 12.讚歎灌浴 13.引聖歸位 14.獻座安位 15.普禮三寶 16.召請中位 17.奉迎赴浴 18.加持澡浴 19.出浴參聖 20.天仙禮聖 21.獻座安位 22.召請下位 23.引詣香浴 24.加持澡浴 25.加持化衣 26.援衣服飾 27.出浴參聖 28.孤魂禮聖 29.受位安座 30.祈聖加持 31.普伸拜獻 32.供聖廻向 33.祈聖加持 34.普伸拜獻 35.供聖廻向 36.宣密加持 37.加持減罪 38.呪食現功 39.孤魂受饗 40.說示因緣 41.願聖垂恩 42.請聖受戒 43.懺除業障 44.發弘誓願 45.捨邪歸正 46.釋相護持 47.得戒逍遙 48.修成十度 49.依十獲果 50.觀行偈讚 51.廻向偈讚 52.化財受用 53.敬伸奉送 54.普伸廻向*26)
志磐文	1.召請使者 2.安位供養 3.奉送使者 4.開闢五方 5.安位供養 6.召請上位 7.奉迎赴浴 8.讚歎灌浴 9.引聖歸位 10.獻座安位 11.普禮三寶 12.召請中位 13.奉迎赴浴 14.加持澡浴 15.出浴參聖 16.天仙禮聖 17.獻座安位 18.召請下位 19.出浴參聖 20.孤魂禮聖 21.受位安座 22.宣密加持 23.加持減罪 24.呪食現功 25.孤魂受饗 26.說示因緣 27.願聖垂恩 28.請聖受戒 29.懺除業障 30.發弘誓願 31.捨邪歸正 32.釋相護持 33.得戒逍遙 34.修成十度 35.依十獲果 36.觀行偈讚 37.廻向偈讚 38.化財受用 39.敬伸奉送 40.普伸廻向

「結手文」의 加持禮聖(22篇) → 中禮文의 孤魂禮聖(28篇), 「結手文」의 發四弘誓(31篇) → 「中禮文」의 發弘誓願(44篇), 「結手文」의 修行六度(34篇) → 「中禮文」의 修成十度(48篇)의 표기와 같이 의식명을 다르게 표현한 것도 볼 수 있다. 한편 「志磐文」의 구성은 「中禮文」과 비슷하다. 그러나 「志磐文」의 1-4篇, 23-26篇, 30-35篇이 생략되어 총 40편으로 되었으며 이로 인해 편차의 이동이 생겼다.

4. 현전 판본 분석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판본은 약 40여종 이상이 확인되었으며, 여기서는 그 중 38종²⁷⁾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이들 판본의 계통은 見性寺版(1470), 中臺寺版(1483), 法興寺版(1488), 無量寺版(1498), 大光寺版(1514), 無量寺版(1529), 文殊寺版(1533), 無爲寺版(1571), 佛峯庵版(1586)의 9계통으로 나누어진다. 각 계통은 行字數 등의 版式, 篇數, 手印의 세부적인 모양과 위치 등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판본

版本	版式形態	所藏
見性寺版(1470)	上下單邊, 匡高 24cm, 無界, 全葉 30行字數不定	湖
中臺寺版(1483)	四周單邊, 22.8×16.2, 無界, 8/17, 無魚尾	寶
法興寺版(1488)	四周單邊, 19.2×13, 無界, 6/15, 無魚尾	月
慈悲嶺寺版(1490)	四周單邊, 18.8×12.3, 無界, 6/15, 無魚尾	圓
無量寺版(1498)	四周單邊, 29.5×21, 無界, 7/17, 內向黑魚尾	佛
大光寺版(1514)	四周單邊, 24.2×17, 無界, 8/17, 黑口, 內向黑魚尾	成, 佛, 寶
無量寺版(1529)	四周單邊, 27.3×20, 有界, 7/16-17, 黑口, 內向黑魚尾	佛
文殊寺版(1533)	四周單邊, 26.8×20, 有界, 7/17, 黑口, 內向黑魚尾	圓, 寶, 佛

25) *는 中禮文에 없는 편차.

26) ■는 中禮文에 새로 추가된 편차.

27) 조사한 판본 외 中宗 27年(1532) 公山本寺, 明宗 16年(1561) 深谷寺, 宣祖 6年(1573) 毗盧寺, 顯宗 14年(1673) 佛岩寺, 肅宗 14年(1688) 普賢寺에서도 간행됨.

版本	版式形態	所藏
公山本寺版(1535)	四周雙邊, 28.0×20.6, 有界, 7/17, 內向黑魚尾	國
靈覺寺版(1536)	四周單邊, 26.0×20, 有界, 7/17, 內向黑魚尾	佛, 寶
廣興寺版(1538)	四周單邊, 27.5×20, 有界, 7/17, 內向黑魚尾	國, 直, 寶, 佛
石頭寺版(1559)	四周單邊, 27.0×20.6, 有界, 7/17, 內向黑魚尾	國
普願寺版(1566)	四周單邊, 27.0×21, 有界, 7/17, 內向黑魚尾	國, 佛, 寶
普門寺版(1568)	四周單邊, 22.4×17, 無界, 8/17, 內向黑魚尾	直
靈德寺版(1569)	四周單邊, 20×16, 有界, 8/17, 大黑口, 內向黑魚尾	延
無爲寺版(1571)	四周單邊, 22.1×17.6, 無界, 8/17, 無魚尾	東, 寶
德周寺版(1573)	四周單邊, 27.4×20.5, 7/17, 內向黑魚尾	東, 延
雙溪寺版(1574)	四周單邊, 21.3×16.6, 無界, 8/17, 內向黑魚尾	奎, 藏
松廣寺版(1574)	四周單邊, 26.8×20.2, 有界, 7/17, 內向黑魚尾	佛, 寶
瑞峯寺版(1581)	四周單邊, 28.3×20.7, 無界, 7/17, 內向黑魚尾	東
佛峯庵版(1586)	四周單邊, 22.7×15.7, 無界, 10/18, 黑口, 內向黑魚尾	慶
能仁庵版(1604)	四周單邊, 27.2×21, 有界, 7/17, 內向有紋魚尾	東, 慶
岬寺版(1622)	四周單邊, 21.3×17.8, 有界, 8/17, 內向黑魚尾	東
水岩寺版(1631)	四周單邊, 27.0×21, 有界, 7/17, 內向有紋魚尾	祇
大興寺版(1634)	四周單邊, 25.8×20.9, 有界, 7/17, 黑口, 內向黑魚尾	寶
兜率庵版(1635)	四周單邊, 23.5×17.5, 有界, 8/17, 內向黑魚尾	東, 佛
龍藏寺版(1635)	四周單邊, 26.5×20, 有界, 7/17, 黑口, 內向4瓣花紋魚尾	佛
松廣寺版(1635)	四周單邊, 26.5×20.8, 有界, 7/17, 內向黑魚尾	寶
回龍寺版(1636)	四周單邊, 22.3×16.5, 有界, 8/17, 內向黑魚尾	東, 奎
甘露寺版(1638)	四周單邊, 25.9×20.3, 有界, 7/17, 內向4瓣花紋魚尾	慶, 天
海印寺版(1641)	四周單邊, 26.4×20.3, 有界, 7/17, 內向4瓣花紋魚尾	東, 香, 寶
通度寺版(1648)	四周單邊, 25.7×20.5, 有界, 7/17, 內向黑魚尾	東, 表, 福
開興寺版(1651)	四周單邊, 25.8×20.8, 有界, 7/17, 內向黑魚尾	寶
栖鳳寺版(1659)	四周單邊, 25.4×20.3, 有界, 7/17, 內向4瓣花紋魚尾	國
興國寺版(1660)	四周單邊, 26.2×21.6, 有界, 7/17, 內向4瓣花紋魚尾	興(經板)
神興寺版(1661)	四周單邊, 25.2×20.6, 無界, 7/17, 內向4瓣花紋魚尾	神(經板)
海印寺版(1694)	四周單邊, 25.6×20.8, 有界, 7/17, 內向4瓣花紋魚尾	慶, 東, 香
海印寺版(1724)	四周單邊, 24.7×20.4, 有界, 7/17, 內向4瓣花紋魚尾	東

(慶: 慶北大, 國: 國立中央圖書館, 奎: 奎章閣, 祇: 祇林寺, 東: 東國大, 寶: 寶林寺, 福: 福泉寺, 佛: 佛岬寺, 成: 成均館大, 神: 神興寺, 延: 延世大, 圓: 圓覺寺, 月: 月精寺, 藏: 藏書閣, 直: 直旨寺, 天: 天理大(日本), 表: 表忠寺, 香: 香山寺, 湖: 湖林博物館, 興: 興國寺)

4.1 계통

4.1.1 見性寺版(1470)

見性寺版은 成宗 1年(1470)에 永嘉府夫人의 발원으로 간행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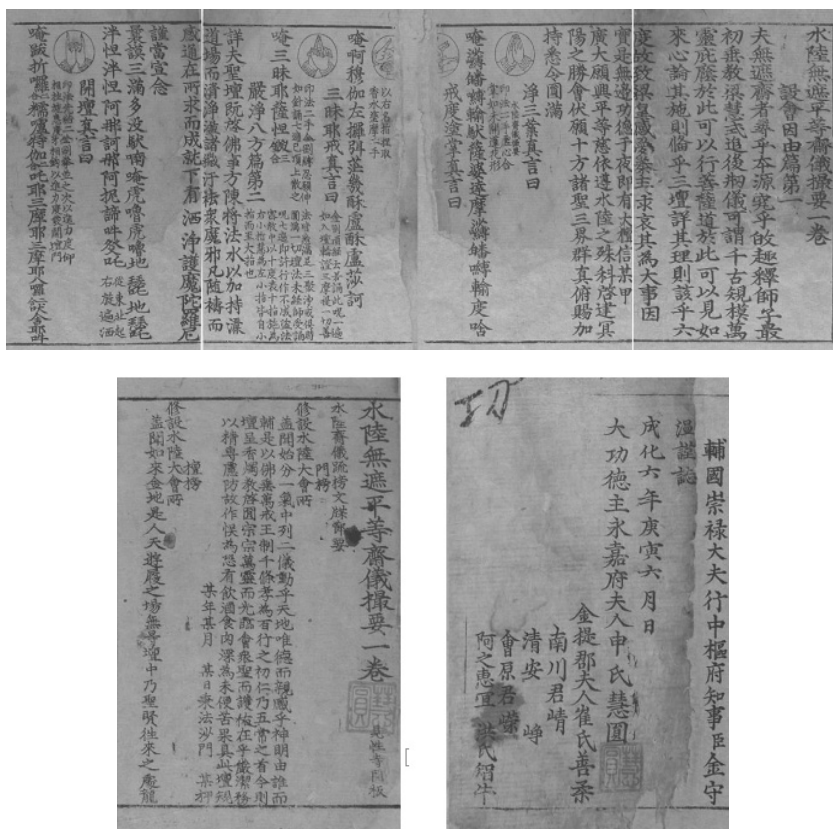
見性寺版의 편찬 경위는 世宗의 五子인 廣平大君이 죽자 그의 어머니 永嘉府夫人 申氏가 發願하여 아들 永順君에게 관하문을 쓰게 하였다. 그러나 永順君은 1469년에 완성하고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다. 이에 申氏는 願堂인 見性寺에서 慧圓이라는 法名을 받고 比丘尼가 되었고, 승려 海慈의 주간 아래 여러 각수가 동원되어 1470년 6월에 완성시켰다.²⁸⁾

본문의 내용은 37篇의 儀式文과 매 眞言마다 의식을 거행할 때의 印法을 도상과 함께 설명하였으며, 본문의 뒤에는 修設水陸大會所門榜, 修設水陸大會所壇榜, 修設水陸大會所浴室榜, 修設水陸大會所看經榜, 修設水陸大會所召請使者疏, 修設水陸大會所開通五路疏, 修設水陸大會所召請上位疏, 修設水陸大會所所召中位疏, 修設水陸大會所所召下位疏, 修設水陸大會所圓滿廻向疏, 修設水陸大會所行牒, 諸疏首行封皮樣이 추가되었다.

卷尾題의 하단에는 ‘見性寺開板’이라는 간기가 있고, ‘慧圓’의 印記가 卷尾題 부분과 跋文에 찍혀 있어 永嘉府夫人 申氏가 소장한 원본임을 알 수 있다. 卷末에는 永順君이 쓴 跋文, 廣平大君, 撫安君, 申自守 등의 靈駕文, 金泉同, 金貴孫, 金千同 등의 刻手 명단, 信眉, 學悅, 學祖를 비롯한 200여명의 施主者 명단과 金守溫의 跋文이 실려 있다.

版式은 四周單邊에 界線과 版心이 없고 匡高의 높이는 대체로 24cm이다. 모두 24枚의 板에 판각하였으며, 全葉을 기준으로 30行 17字이다. 12行과 13行 사이에는 ‘水陸齋儀撮要’라는 板題가 있고, 그 하단에 張次가 있다.

28) 호림박물관 소장본(보물 1105호)의 發願文 및 卷末 기록에 의거함.



<그림 1> 見性寺版「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卷首·卷末 기록

4.1.2 中臺寺版(1483) 系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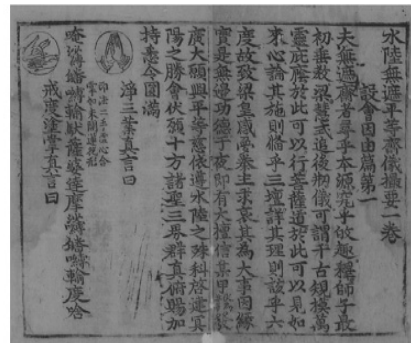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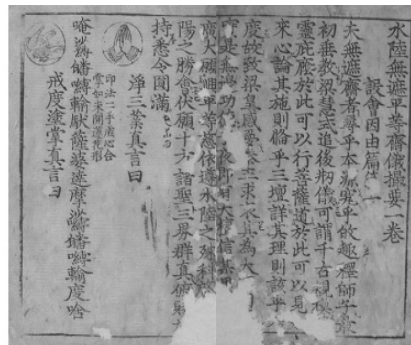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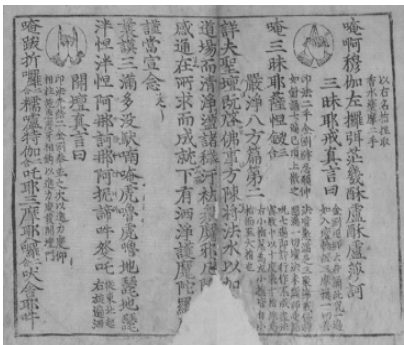
成宗 14年(1483) 全羅道 鎭安 소재의 中臺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見性寺版과는 版式, 編次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형태적으로는 全葉 15行 17字로 일정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半葉을 기준으로 보면 字數는 일정하나 行數는 일정하지 않다. 즉 7行→8行(2-5, 7-9, 14-16, 18-20, 22-27, 30-33, 37-38장), 8行→7行(1, 6, 10-12, 17, 21, 28-29,

34-36장)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둘째, 내용 구성에 있어 見性寺版이 총 37篇을 수록하고 있는 반면 中臺寺版은 ‘開闢五方篇 第九’, ‘安位供養篇 第十’을 제외한 35篇으로 구성되었고, 2篇이 제외됨으로써 그 다음 편부터는 2편씩 앞당겨 편차가 이루어졌다.

中臺寺版의 대체적인 版式은 四周單邊에 界線이 없고, 半匡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23cm, 가로 16cm이며, 한 면은 7행 내지 8行 15字이다. 版心에는 ‘水 一’, ‘水 二’와 같이 版心題와 張次가 표시되어 있다. 卷末에는 ‘成化十九年癸卯三月日 全羅道鎭安地聖壽山中臺寺開板’이라는 간기와 간행참여자 명단이 있고, 刻手로는 義敬, 鍊板은 性敏이 참여하였다.



<그림 2> 中臺寺版(上), 兜率庵版(下)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卷首面

한편 兜率庵版²⁹⁾은 仁祖 13年(1635)에 光州의 兜率庵에서 간행된 것으로, 版式의 형태와 내용의 구성이 中臺寺版과 동일하여 같은 계통의 판본임을 알 수 있다. 兜率庵版은 卷末에 ‘嘉靖十三年甲午春日 全羅道光州地瑞石山兜率庵開板’의 간기가 있고, 刻手는 戒心, 淡濱, 鍊板은 信行이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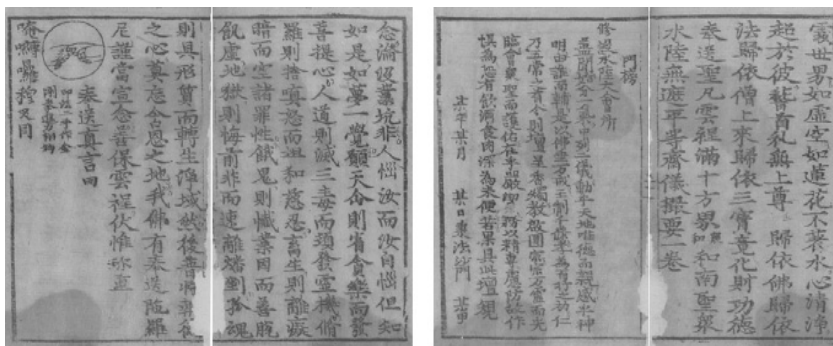
4.1.3 法興寺版(1488) 系統

成宗 19年(1488)에 간행된 판본으로, 기존의 판본과는 형태적으로 많은 차이가 보인다. 특히 版式의 변화로 책의 크기가 작아졌고, 한 면은 6行이다.

卷末에는 ‘弘治元年丙辰六月日 順安地法弘山法興寺開板’의 간기가 있으며, 수록된 의식문은 中臺寺版과 같은 35篇으로 구성되었다.

대체적인 版式은 四周單邊에 界線이 없고, 半匡의 크기는 세로 19cm, 가로 12.5cm이며, 한 면은 6行 15字이다. 版心은 魚尾가 없으며, 版心題는 주로 ‘水’, 일부 ‘水陸’으로 된 것도 있다.

法興寺版과 동일한 계통의 판본인 慈悲嶺寺版(1490)은 瑞興의 慈悲嶺寺에서 간행되어 ‘弘治三年庚戌七月日 瑞興地慈悲山慈悲嶺寺開板’의 간기가 있다.



<그림 3> 法興寺版(1488)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29) 全南有形文化財 203號, 寶林寺 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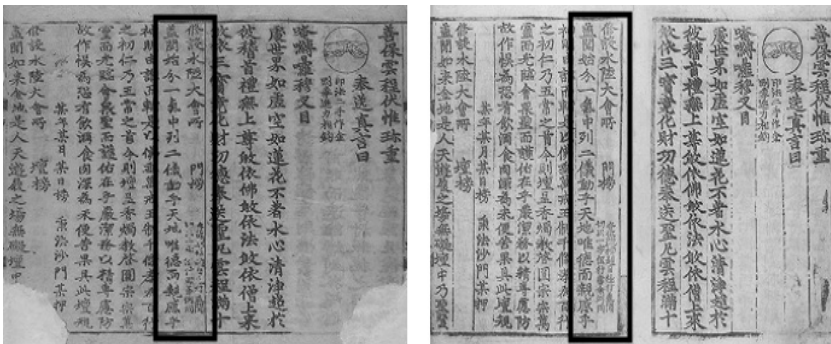
4.1.4 無量寺版 I (1498) 系統

無量寺版 I³⁰⁾은 燕山君 2年(1498)에 간행된 것으로, 字體와 판식의 크기가 이전보다 커졌으며, 수록된 의식문은 35篇이다.

刻匠에는 昌敏, 穀熙, 熙順, 鍊板에는 道和가 담당하였고, 책의 맨 뒷장에 ‘弘治十一年戊午仲冬日刊 忠淸道鴻山地萬壽山無量寺留板’의 간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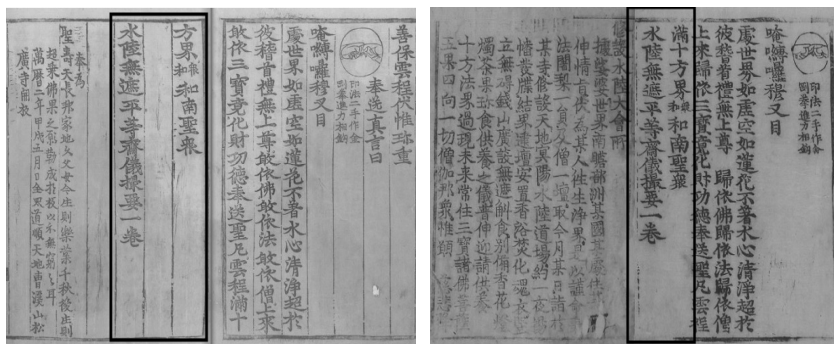
동일한 계통의 판본으로는 普願寺版(1566)이 확인되며, 卷末에 ‘嘉靖四十五年丙寅五月日 淸洪道瑞山地伽倻山普願寺留板’의 刊記와 각수로 崇悟, 道眞이 참여하였다. 普願寺版은 無量寺版과 같은 계통이나 界線을 넣었다.

無量寺版과 普願寺版이 다른 판본 계통과의 차이는 <그림 4>와 같이 마지막 의식문인 ‘奉送六道篇’의 끝 문장(‘方界 衆和 和南聖衆’)과 卷尾題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판본들은 <그림 5>와 같이 이 문장이 나오고, 다음 行에 刊記 및 부록으로 이어지는데 이 2行을 생략하고 바로 ‘修設水陸大會所 門榜’과 연결되었다.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인지, 번각하는 과정에서의 오류인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전하는 無量寺版과 普願寺版의 모든 판본에서 나타난다.



<그림 4> 無量寺版(I), 普願寺版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30) 無量寺에서 간행된 판본의 계통은 2종이 확인되어 이의 구별을 위해 無量寺版 I・II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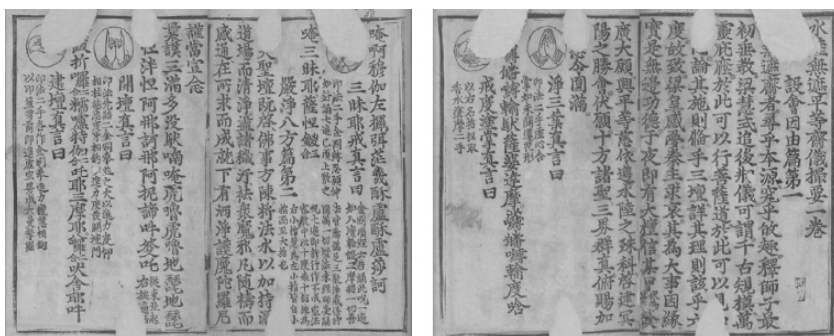


<그림 5> 無量寺版 계통과 다른 계통의 卷末, 卷尾題 부분의 연결

4.1.5 大光寺版(1514) 系統

中宗 9年(1514) 順天 大光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수록된 의식문은 見性寺版과 같이 37篇로 구성되어 있다. 卷末에는 ‘正德九年甲戌正月日 全羅道順天地母後山大光寺開板’의 간기가 있으며 刊板에는 正悟, 金玉孫이 담당하였다.

대체적인 版式은 四周單邊에 界線이 없고, 半匡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24cm, 가로 17cm이며, 한 면은 8行 17字이다. 版心은 上下大黑口에 上下內向黑魚尾이며, 版心題는 ‘水’이고, 하단에 장차가 표시되어 있다.



<그림 6> 大光寺版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같은 계통의 판본으로는 普門寺版(1568), 靈德寺版(1569)이 확인되며, 普門寺版은 '隆慶二年戊辰三月日 慶尙道尙州地普門山普門寺開板', 靈德寺版은 '隆慶三年己巳(1569)仲夏月日 咸鏡道文川地盤龍山靈德寺開板'의 간기가 있다.

4.1.6 無量寺版 II(1529)

中宗 24年(1529) 無量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수록된 의식문은 35篇이다. 卷末에 '嘉靖己丑九月日 留板于鴻山無量寺'의 간기가 있고, 기타 기록은 없다.

대체적인 版式은 四周單邊에 界線이 있고, 半匡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27cm, 가로 20cm이며, 한 면은 주로 7行 16字이나 일부는 7行 17字이다. 版心은 上下大黑口에 上下內向黑魚尾이며, '水'의 版心題와 하단에 張次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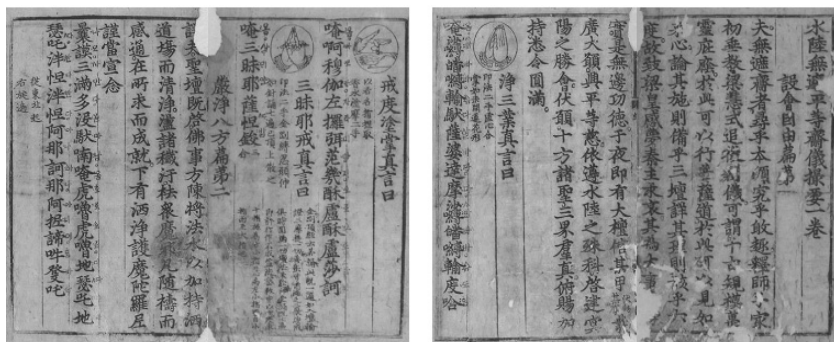
<그림 7> 無量寺版(I)·(II)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第35編 비교

無量寺에서는 앞장(4.1.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498年에도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를 간행하였으나 1529年版은 1498年版의 後刷本이나 飜刻本이 아니라 새롭게 판각하여 간행하였다.

4.1.7 文殊寺版(1533) 系統

中宗 28年(1533)에 全羅道 高敞 소재의 文殊寺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수록된 의식문은 35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末에는 ‘嘉靖十二年癸巳十月日 全羅道高敞文殊寺重刊’의 간기와 함께 法崇, 道信, 道試, 敬熙, 玉圭 등의 刻手 명단이 있다. 대체적인 版式은 四周單邊에 界線이 있고, 半匡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27-28cm, 가로 20cm이며, 한 면은 7行 17字이다. 版心은 上下大黑口에 上下內向黑魚尾이며, ‘結’의 版心題와 하단에 張次가 표시되어 있다.



<그림 8> 文殊寺版(153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文殊寺版과 같은 계통의 판본은 21종이 확인되며, 이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여러 판본의 계통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계통의 판본 중에는 후대로 내려갈수록 글자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글자의 모양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으로 보아 飜刻과 再飜刻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6> 文殊寺版 계통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版本	刊記
公山本寺版(1535)	嘉靖十四年乙未三月日 慶尙道永川地公山本寺開板
靈覺寺版(1536)	嘉靖十五丙申年正月日 慶尙道安陰地德宥山靈覺寺開板
廣興寺版(1538)	嘉靖十七年戊戌七月日 慶尙道安東地下柯山廣興寺開板
石頭寺版(1559)	嘉靖三十八年己未八月日 黃海道兎山地鶴鳳山石頭寺留板
德周寺版(1573)	萬曆元年癸酉仲夏 忠清道忠州地月岳山德周寺開板
松廣寺版(1574)	萬曆二年甲戌五月日 全羅道順天地曹溪山松廣寺開板
瑞峯寺版(1581)	萬曆九年辛巳 京畿龍仁地光教山瑞峯寺留置
能仁庵版(1604)	萬曆三十二年甲辰七月日 慶尙道晉州地智異山能仁庵開板
水岩寺版(1631)	崇禎四年辛未六月日 慶尙道清道地九龍山水岩寺開刊
大興寺版(1634)	崇禎七年甲戌仲夏日 全羅道海南縣南有峴崙山大興寺開板
龍藏寺版(1635)	崇禎八年乙亥四月日 全羅道泰仁地雲住山龍藏寺開刊
松廣寺版(1635)	崇禎十一年乙亥仲秋日 曹溪山松廣寺開刊
甘露寺版(1638)	崇禎十一年戊寅十二月日 全羅道南原府一智異山甘露寺開刊
海印寺版(1641)	辛巳年六月日 慶尙道陝川地伽倻山海印寺開板
通度寺版(1648)	順治五年戊子五月日 梁山通度寺模刊
開興寺版(1651)	順治八年辛卯三月日 全羅道宝城地五峯山開興寺開板
瑞峯寺版(1659)	順治十六年己亥夏四月日 慶尙道昆陽郡地鳳鳴山栖鳳寺留板
海印寺版(1694)	康熙三十三年甲戌六月日 陝川伽倻山海印寺開板
海印寺版(1724)	雍五二年甲辰三月日 慶尙道陝川地伽倻山海印寺開板
興國寺版(1660)	順治十七年庚子仲夏日 靈鷲山興國寺開板
神興寺版(1661)	順治十八年辛丑四月日 江原道襄陽都護府地雪嶽山神興寺重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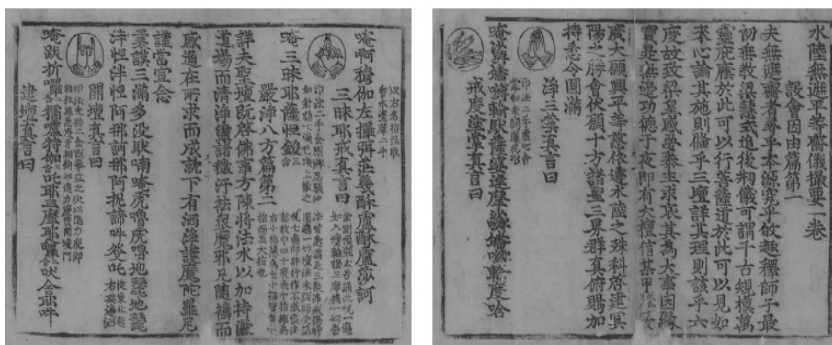
4.1.8 無爲寺版(1571) 系統

宣祖 4年(1571)에 全羅道 康津의 無爲寺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수록된 의식문은 37篇이며, ‘天地冥陽水陸齋儀疏榜文牒節要’가 合綴되어 있다.

책의 맨 뒤에는 ‘隆慶五年辛未三月日 全羅道康津地月出山無爲寺開板’의 간기가 있고, 간행 참여자 중 校正은 一雄, 刻手는 法輪, 性明, 性俊, 惠明, 元仁, 戒仁 등의 6명이 담당하였다.

無爲寺版과 동일한 계통은 雙溪寺版(1574), 岬寺版(1622)이 확인된다. 雙溪

寺版은 忠淸道 恩津의 雙溪寺에서 간행된 것으로, ‘萬曆二年甲戌仲春日 忠淸道 恩津地佛明山雙溪寺開板’의 간기와 刻手名 大光이 기록되었으며, 岬寺版은 忠淸道 公州의 岬寺에서 간행된 것으로, ‘天啓二年壬戌十二月日 公洪道公州地鷄龍山岬寺開板’의 간기와 刻手名은 ‘自作施主 元敏雙招’로 기록되어 元敏과 雙招가 施主 판각하였다.



<그림 9> 無爲寺版(157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그림 10> 岬寺版(162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대체적인 版式은 四周單邊에 魚尾가 없고, 半匡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21-22cm, 가로 17cm이며, 全葉 16行 17字(단, 1板은 15行 17字)이다. 版心題는

‘水’로, 版心題의 위에는 ‘性’, ‘明’과 같이 刻手名の 한 글자만 새겨져 있다. 版心題의 하단에 장차가 표시되어 있다.

4.1.9 佛峯庵版(1586)

宣祖 19年(1586) 黃海道 谷山の 佛峯庵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경북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앞장이 일부분 훼손 결락되어 있다.

수록된 의식문은 37편이며, ‘天地冥陽水陸齋儀疏榜文牒節要’가 合綴되어 있다. 책의 맨 끝에는 刻刀 天雄, 木手 戒俊, 校正 性浩가 담당한 기록이 있고, ‘萬曆十四年(1586)仲夏 黃海谷山郡高達山佛峯庵開板’의 刊記가 있다.

대체적인 版式은 四周單邊에 界線이 있고, 半匡의 크기는 대체로 세로 21-22cm, 가로 16cm이며, 한 면은 8行 17字, 일부는 18字이다. 版心은 上下大黑口에 上下內向2-4瓣花紋魚尾이다. 앞에서 언급한 판본들의 版心題가 모두 ‘結’이나 ‘水’, 내지는 ‘水陸’인데 비해 이 판본은 ‘結手’로 되어 있다. 版心題 하단에는 張次가 있다.



<그림 11> 佛峯庵版(1586)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이상과 같이 확인된 38種은 見性寺版(1470), 中臺寺版(1483) 계통, 法興寺版(1488) 계통, 無量寺 I (1498) 계통, 大光寺版(1514) 계통, 無量寺 II (1529), 文殊寺版(1533) 계통, 無爲寺版(1571) 계통, 佛峯庵版(1586)의 9계통으로 나누어진다.

계통별 판본의 수는 <표 7>과 같이 見性寺版 1種, 中臺寺版 계통 2種, 法興寺版 계통 2種, 無量寺 I 계통 2種, 大光寺版 계통 3種, 無量寺 II 1種, 文殊寺版 계통 22種, 無爲寺版 계통 4種, 佛峯庵版 1種이며, 文殊寺版 계통이 현전하는 판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계통별 판식의 차이 중 行字數에 있어서는 見性寺版 30行 17字(全葉), 中臺寺版 15行 17字(全葉), 法興寺版 6行 15字, 無量寺 I 7行 17字, 大光寺版 8行 17字, 無量寺 II 7行 16-17字, 文殊寺版 7行 17字, 無爲寺版 16行 17字(全葉), 佛峯庵版 8行 17-18字로 계통별로 판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표 7>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계통별 비교

版本	同系統 版本	行字數	界線	版心題	篇數
見性寺版 (1470)		30/17 (全葉)	無	水陸齋儀 撮要	37
中臺寺版 (1483)	兜率庵版	15/17 (全葉)	無	水	35
法興寺版 (1488)	慈悲嶺寺版(1490)	6/15	無	水	35
無量寺 I (1498)	普願寺版(1566)	7/17	無, 有	結	35
大光寺版 (1514)	普門寺版(1568), 靈德寺版(1569)	8/17	無	水	37
無量寺 II (1529)		7/16 -17	有	水	35
文殊寺版 (1533)	公山本寺版(1535), 靈覺寺版(1536), 廣興寺版(1538), 石頭寺版(1559), 德周寺版(1573), 松廣寺版(1574), 瑞峯寺版(1581), 能仁菴版(1604), 水巖寺版(1631), 大興寺版(1634), 龍藏寺版(1635), 松廣寺版(1635), 甘露寺版(1638), 海印寺版(1641), 通度寺版(1648), 開興寺版(1651), 栖鳳寺版(1659), 海印寺版(1694), 海印寺版(1724) ※ 經板: 興國寺版(1660), 神興寺版(1661)	7/17	有	結	35
無爲寺版 (1571)	雙溪寺版(1574), 岬寺版(1622), 回龍寺版(1636)	16/17 (全葉)	無	水	37
佛峯庵版 (1586)		8/17 -18	有	結水	37

각 계통은 판식 등의 형태적인 차이나 의식문의 수록 편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특히 판심 부분은 <그림 12>와 같이 版心題나 魚尾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판심제의 경우 ‘水’, ‘水陸’, ‘結’, ‘結手’ 등으로 나타나며 동일한 계통 내에서도 판심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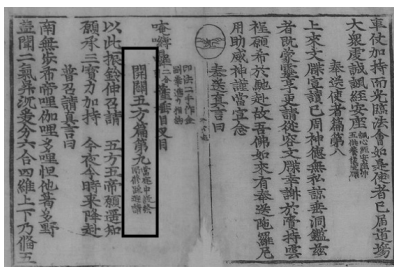
中臺寺版	法興寺版	無量寺(Ⅰ)	大光寺版	無量寺(Ⅱ)	文殊寺版	無爲寺版	佛峯庵版

<그림 1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계통별 版心 부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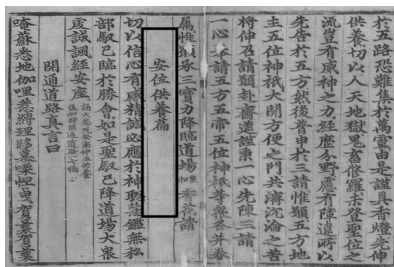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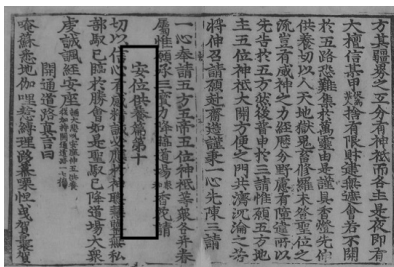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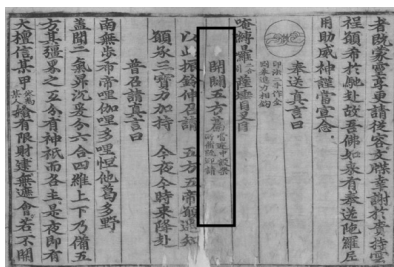
編次の 구성에 있어서는 37篇과 35篇의 2종으로 나누어진다.

37편으로는 見性寺版, 大光寺版 계통, 無爲寺版 계통, 佛峯庵版이고, 35편으로는 中臺寺版 계통, 法興寺版 계통, 無量寺版Ⅰ 계통, 無量寺版Ⅱ, 文殊寺版 계통이다. 편차의 구성이 37편과 35편으로 되는 이유는 <그림 13>의 예와 같이 37편의 편차 구성 중 第9篇(開闢五方)과 第10篇(安位供養)이 35篇에는 第8篇(奉送使者) 내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37篇의 第11篇인 召請上位篇이 35편에는 제9편으로 되어 있고, 이후에는 내용의 변화 없이 두 개의 편차가 앞당겨져 있다.

37篇으로 구성된 無爲寺版(1571)



35篇으로 구성된 廣興寺版(1538)



<그림 13> 編次の 변화(37→35篇) 부분 예

4.2 간행 시기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시기별 간행을 살펴보면, <표 8>과 같이 16세기 초에서 17세기 초중반까지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간행의 시기를 세기별로 나누어보면 15세기 5종(11.6%), 16세기 19종(44.2%), 17세기 18종(41.9%), 18세기 1종(2.3%)으로, 16-17세기의 간행 비율이 전체의 약 85%이다. 또한 왕조별로 보면 成宗 4종(9.3), 燕山君 1종(2.3), 中宗 7종(16.3%), 明宗 3종(7%), 宣祖 10종(23.2%), 光海君 1종(2.3%), 仁祖 9종(21%), 孝宗 2종(4.6%), 顯宗 3종(7%), 肅宗 2종(4.6%), 景宗 1종(2.3%)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시기가 임진왜란을 전후로 한 질병, 자연재해 등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찰에서 정기·비정기적인 수록제가 설행되었고, 이에 따른 경전의 공급 및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8>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시기별 간행

刊行時期		刊行數(%)	刊行處(刊行年)
15世紀	成宗	4(9.3)	見性寺(1470), 中臺寺(1483), 法興寺(1488), 慈悲嶺寺(1490)
	燕山君	1(2.3)	無量寺(1498)
16世紀	中宗	7(16.3)	大光寺(1514), 無量寺(1529), 公山本寺(1532), 文殊寺(1533), 公山本寺(1535), 靈覺寺(1536), 廣興寺(1538)
	明宗	3(7)	石頭寺(1559), 深谷寺(1561), 普願寺(1566)
	宣祖	10(23.2)	普門寺(1568), 靈德寺(1569), 無爲寺(1571), 德周寺(1573), 毗盧寺(1573), 松廣寺(1574), 雙溪寺(1574), 瑞峯寺(1581), 佛峯菴(1586)
			能仁菴(1604)
17世紀	光海君	1(2.3)	岬寺(1622)
	仁祖	9(21)	水巖寺(1631), 大興寺(1634), 兜率庵(1635), 龍藏寺(1635), 松廣寺(1635), 回龍寺(1636), 甘露寺(1638), 海印寺(1641), 通度寺(1648)
	孝宗	2(4.6)	開興寺(1651), 栖鳳寺(1659)
	顯宗	3(7)	※經板: 興國寺(1660), 神興寺(1661), 佛巖寺(1673)
	肅宗	2(4.6)	普賢寺(1688), 海印寺(1694)
18世紀	景宗	1(2.3)	海印寺(1724)

4.3 간행 지역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간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4종(9.3%), 강원도 1종(2.3%), 충청도 6종(14%), 경상도 13종(30.2%), 전라도 12종(27.9%), 평안도 3종(7%), 황해도 3종(7%), 함경도 1종(2.3%)으로, 이중 경상도와 전라도의 판본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여 양도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왕실 발원의 見性寺版을 비롯하여 瑞峯寺, 回龍寺, 佛岩寺 등 4곳, 충청도에서는 無量寺를 비롯하여 普願寺, 雙溪寺 등 5곳, 경상도는 公山本寺, 海印寺 등 10곳, 全羅道는 松廣寺, 中臺寺 등 11곳에서 간행되었다.

특히 같은 사찰에서 2회 이상 간행된 곳도 확인되는데, 無量寺 2회(1498, 1529), 陝川 海印寺 3회(1641, 1694, 1724), 公山本寺 2회(1532, 1535), 松廣寺에서 2회(1574, 1635) 간행되었다.

<표 9> 지역별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간행

刊行地	刊行處(刊行年)
京畿道(4)	見性寺(1470), 龍仁 瑞峯寺(1581), 京畿道 楊州 回龍寺(1636), 京畿道 佛岩寺(1673)
江原道(1)	神興寺(1661)
忠清道(6)	鴻山 無量寺(1498), 鴻山 無量寺(1529), 瑞山 普願寺(1566), 忠州 德周寺(1573), 恩津 雙溪寺(1574), 岬寺(1622)
慶尙道(13)	公山本寺(1532), 公山本寺(1535), 安陰 靈覺寺(1536), 安東 廣興寺(1538), 醴泉 普門寺(1568), 豐基 毗盧寺(1573), 晉州 能仁菴(1604), 清道 水巖寺(1631), 陝川 海印寺(1641), 陽山 通度寺(1648), 昆陽 棲鳳寺(1659), 陝川 海印寺(1694), 陝川 海印寺(1724)
全羅道(12)	鎭安 中臺寺(1483), 順天 大光寺(1514), 高敞 文殊寺(1533), 康津 無爲寺(1571), 順天 松廣寺(1574), 海南 大興寺(1634), 順天 松廣寺(1635), 泰仁 龍藏寺(1635), 光州地 兜率庵(1635), 南原府 甘露寺(1638), 寶城 開興寺(1651), 興國寺(1660)
平安道(3)	順安 法興寺(1488), 深谷寺(1561), 妙香山 普賢寺(1688)
黃海道(3)	瑞興 慈悲嶺寺(1490), 兎山 石頭寺(1559), 谷山郡 佛峯庵(1586)
咸鏡道(1)	文川地 靈德寺(1569)

4.4 각수 기록

각수에 대한 기록 중 표기는 대부분 ‘刻手’로 되어 있지만 ‘刻匠’, ‘刊板’, ‘刻刀’, ‘刻字’, ‘刊刻’, ‘刻貝’으로 기재되었다.

판각에 있어 동원된 각수는 <표 10>과 같이 보통 3-5명이지만 德周寺版(1573), 雙溪寺版(1574), 松廣寺版(1635)의 경우처럼 한 명의 각수가 담당하기도 하였고, 龍藏寺版(1635), 海印寺版(1641)과 같이 비교적 많은 인원인 10명 이상이 담당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각수 중에는 다른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에서 동일한 刻手名이 확인되어 교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愼初’와 ‘性臨’은 慶尙道 永川 八空本寺版(1535), 慶尙道 安陰 靈覺寺版(1536)에 두 명 모두 기재되어 있어 당시 함께 활동한 사찰 각수인 것으로 여겨진다. ‘敬熙’는 전라도 高敞 文殊寺版(1533), 전라도 順天 松廣寺版(1574)에 동일명이 보이고, ‘道眞’은 瑞山 普願寺版(1566), 全羅道 順天 松廣寺版(1574)에 동일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각수일 것으로 추정되어 지역별 사찰 간 교류에 대하여 추측할 수 있다.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版本에 대한 연구

<표 10>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刻手 기록

版本	刻手 및 板刻 관련 기록
見性寺版(1470)	全祿同, 金貴孫, 全千同
中臺寺版(1483)	刻手 義敬, 鍊板 性敏
無量寺版(1498)	刻匠 昌敏, 穀熙, 熙順, 鍊板 道和
大光寺版(1514)	刊板 正悟, 金玉孫
文殊寺版(1533)	刻手 法崇, 道信, 道試, 敬熙, 玉圭
公山本寺版(1535)	刻秩 愼初, 性臨, 鍊板: 學禪
靈覺寺版(1536)	刻手 愼初, 性臨, 僅罔
廣興寺版(1538)	刻手 三崇, 鍊板: 熙云
普願寺版(1566)	刻手秩 崇悟, 道眞
無爲寺版(1571)	刻手 法輪, 性明, 性俊, 惠明, 元仁, 戒仁
德周寺版(1573)	刻手 崇雨
松廣寺版(1574)	刻手 萬惠, 太淮, 祖雄, 敬元, 戒近, 敬熙, 道眞, 大元
雙溪寺版(1574)	刻手 大光
佛峯庵版(1586)	刻刀 天雄, 木手 戒俊, 校正 性浩
岬寺版(1622)	刻手 自作施主 元敏雙招
大興寺版(1634)	刻手 敬天, 敬連, 揮祖, 雲甘, 法官, 鍊板: 雲晃
兜率庵版(1635)	刻手 戒心, 淡演, 鍊板은 信行
龍藏寺版(1635)	治匠 金命水, 鍊板 吳守眞, 法信, 尙連 刻字 印和, 道慈, 林之先, 性玄, 成云, 法海, 金光立, 宝无, 玄淨, 學淳, 杜一, 修遠
松廣寺版(1635)	鍊板: 清信
甘露寺版(1638)	刊刻 哲學, 淨行, 玄莊
海印寺版(1641)	鍊板 法宗 刻字 孫世綱, 釋敏, 釋日, 釋惠, 三學, 信悟, 道堅, 坦僅, 信[], 應淡, 道信, 定豈
開興寺版(1651)	刻秩 善和比丘, 善裕比丘, 學軒比丘, 性稔比丘 鍊板 思哲比丘, 和尙一浩比丘, 三綱正元比丘, 持殿善熙, 學瓊比丘, 智安比丘
海印寺版(1694)	刻貝 眞默, 得敏, 最寬, 擇瓊, 摠信, 怡衍
海印寺版(1724)	刻貝秩 大首通政滕安, 通政朴潤, 通政怡演

4.5 판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에 수록된 판화는 手印을 도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63개의 手印圖를 비교해보면 手印의 모양, 형태는 큰 차가 없다. 그러나 손의 크기나 모양, 엄주, 손가락 마디 모양, 원형 테두리의 모양, 수인의 공간적인 위치 등의 차이가 나고, 각수가 잘못 새긴 경우도 있다.

<표 1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手印圖의 판각 예

	見性寺	中臺寺	法興寺	無量寺 I	大光寺	無量寺 II	文殊寺	無爲寺	佛峯庵
31圖									
34圖									

또한 手印圖는 대부분은 한 판 안에 도상이 포함되어 있지만 공간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는 도상은 版心 부분이나 邊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새긴 것이 있고, 심지어 다음 판에 절반씩 분리시켜 새기기도 하였다.³¹⁾

4.5.1 誤刻 등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경우

佛峯庵版의 다른 手印이나 다른 판본의 수인은 모두 양각으로 판각하여 찍었으므로 손 모양은 모두 흑색이다. 그러나 佛峯庵版의 ‘指壇眞言’의 手印(31圖)은 특이하게도 음각으로 새겨 찍어 손 모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색이다. 이는 단순히 刻手의 誤刻으로 보인다.

法興寺版의 ‘變食眞言’ 手印(34圖)은 오른손의 無名指를 위로 향하게 하는 印法으로, 다른 수인보다 無名指가 위로 덜 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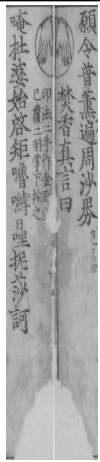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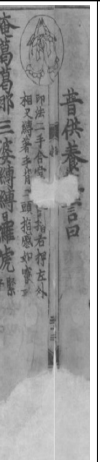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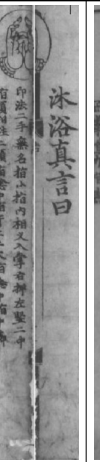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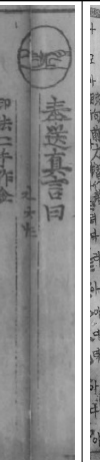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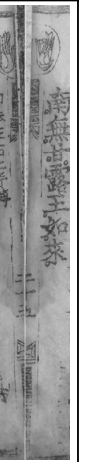
<표 1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手印圖의 판각 예

	見性寺	中臺寺	法興寺	無量寺 I	大光寺	無量寺 II	文殊寺	無爲寺	佛峯庵
31圖									
34圖									

31) 이러한 것은 9계통의 판본 중 見性寺版(1470)을 제외한 모든 판본에서 나타나며, 특히 판심 부분에 삽입되어 판각한 手印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4.5.2 版心に 들어간 경우

手印圖가 版心の 위치와 맞물려 있는 위치에 놓여 圖像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림 14>와 같이 見性寺版을 제외한 모든 판본에서 보인다.

中臺寺版	法興寺版	無量寺 I	大光寺版	無量寺 II	文殊寺版	無爲寺版	佛峯庵版
							
8圖	55圖	58圖	39圖	55圖	23圖	10圖	49圖

<그림 14> 版心 부분에 板刻된 手印圖

이러한 경우에는 판심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판심 안에 도상을 연결하여 새겼으며, 無量寺版(1529)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4.5.3 邊欄 밖에 板刻한 경우

大光寺版(1514)의 9圖는 合掌 형태의 手印으로, 圖像이 왼쪽 邊欄 밖으로 나가 새겨져 있다. 이는 한 판에 手印圖를 모두 판각하여 책의 간행 시 한 면에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수인은 大光寺版의 59圖에서도 나타나는데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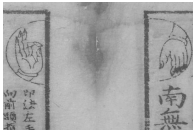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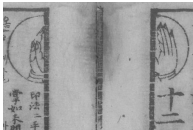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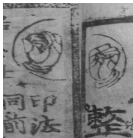
문 29장의 좌측 변란의 테두리 밖에 절반 정도가 나와서 새겨져 있다.

5張	4張	30張	29張
			
大光寺版 9圖		大光寺版 59圖	

4.5.4 두 판에 분리된 경우

法興寺版(1488)은 이전의 판본과는 많이 다른 형태인 6行 15字로 되어 있다. 앞의 大光寺版이 欄外에도 도상이 나오게 하여 다음 장과 분리하지 않은 것에 비해 法興寺版은 하나의 手印을 두 판에 분리하여 판각하였다.

본문의 35장에 위치한 第23篇 ‘宣揚聖号篇’에 수록된 48圖와 37장에 위치한 第24篇 ‘設施因緣篇’에 수록되어 있는 50圖는 각각 다음 장과 분리되었고, 佛峯庵版의 48장에 위치한 30圖, 52장에 위치한 42圖도 분리되어 있다.

36張	35張	38張	37張
			
法興寺版 48圖		法興寺版 50圖	
			
佛峯庵版 30圖		佛峯庵版 42圖	

5. 결 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은 1470년에 왕실의 발원으로 見性寺에서 최초로 간행된 이후 18세기 초까지 간행된 40여종 이상의 판본이 전해진다.

본 연구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판본 계통, 시대별, 지역별 간행, 刻手, 圖像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고찰되었다.

첫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판본은 9계통으로 나타났으며, 계통별 판본의 수에 있어서는 文殊寺版(1533) 계통이 22종으로 가장 많다.

둘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편차는 37편과 35편의 2종이다. 35편으로 된 것은 37편에서 2편이 생략된 것이 아니라 37편의 제9편 ‘開闢五方’과 제10편 ‘安位供養’이 35편의 제8편 ‘奉送使者’ 내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편차의 변화 없이 2편씩 편차가 앞당겨져 35편이 되었다.

셋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간행은 16세기에서 17세기 초중반까지 가장 빈번하였다. 간행 시기를 세기별로 보면, 16-17세기의 간행 비율이 전체의 약 85%이다. 이는 이 시기가 임진왜란을 전후로 한 질병, 자연재해 등 정치·사회적인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찰에서 정기·비정기적인 수록제가 설행되었고, 이에 따른 경전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별 간행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판본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여 양도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각수 중 愼初와 性臨 2명은 永川 八空本寺版(1535), 安陰 靈覺寺版(1536)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 사찰 각수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에는 63개의 手印圖가 있으며, 전체적인 모양은 큰 차이가 없으나 세부적인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다. 圖像 중 한 면이나 한 판에 모두 새겨지지 않는 것은 판심 안이나 변란 밖으로 튀어 나가게 하여 판각하거나 다음 판에 도상을 반으로 나누어 새기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

「楊村集」.

「天地冥陽水陸雜文」.

金蓮敬. “한국 水陸齋儀에 관한 연구.” 『석림』 第11輯(1977). 284-305.

金熙俊. “朝鮮前期 水陸齋의 設行.” 『역사와 담론』 第30輯(2001). 27-75.

南希淑.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 眞言集과 佛教儀式集을 中心으로 -.”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東國大 佛教文化研究院. 『韓國密敎思想』. 서울: 韓國言論資料刊行會, 1997.

徐閔吉. 『朝鮮密敎思想史 研究』. 서울: 불광출판사, 1994.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 판본고.” 『書誌學報』 第37輯(2011). 27-74.

송일기·한지희. “불교의례서 中禮文 편찬고.” 『書誌學研究』 第43輯(2009). 115-149.

梁智淪. “朝鮮後期 水陸齋 研究.”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3.

正 覺. “靈光 佛甲寺 佛腹藏 儀式關係 典籍.” 『書誌學報』 第35輯(2010). 253-282.

한상길. “朝鮮前期 水陸齋 設行의 사회적 의미.” 『한국선학』 제23호(2009). 671-710.

한지희. “竹菴 編纂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9.